

난민공동체에 나타난 민족정체성에 관한 질적연구

박미숙* · 김영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난민들이 한국사회로 이주 후 다양한 적응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난민공동체에서 거주하는 난민을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민족정체성을 종교 영역, 언어 및 생활영역, 사회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 영역에서 공동체에 살고 있는 난민들은 그들의 정신 유산인 고유 종교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거나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변형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 둘째, 언어 및 생활영역에서는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거나 모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사회 영역에서 공동체를 통한 자녀교육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같은 민족임을 인지하고 같이 보호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재형성하고 있었다.

주요어 난민공동체, 민족정체성, 종교, 언어와 생활, 사회

1. 서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24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 B4055802).

* 인하대, 다문화교육, parkmisuk@inha.ac.kr

** 인하대, 사회교육, kinysoon@inha.ac.kr



민 등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 새롭게 부각되는 이주민은 난민이다. 2019년 4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난민 신청한 사람은 53,001명으로 이 중 심사결정이 종료된 사람은 24,444명이다.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3,013명으로 난민의 지위를 얻어 보호받고 있다.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신청하는 사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정치적 사유,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인종, 국적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사회에 처음 난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2019년 4월까지 난민인정자는 936명에 불과하다. 또한 2019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급증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과 같이 한국사회 난민들의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난민들은 자국으로부터 다양한 박해로 인해 한국사회에 체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이주자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이 난민으로 신청하면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서 장기적인 체류하거나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종교를 피해 이주한 난민들이라도 한국사회에서는 교회를 거점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는 이주민공동체를 통해 이민자와 선주민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일종의 접촉지대(윤인진 2006: 40)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주민공동체는 공동체를 통하여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한다. 난민공동체 역시 같은 처지의 민족끼리 모여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소수민족 공동체는 민족의 자긍심과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공동체 내의 지식과 가치를 통하여 문화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정호영 2001: 78).

난민들 역시 한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민족의 공동체에 머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한다. 이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주민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을 이해하고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며 살아가는지는 난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난민들이 우리사회 진정한 구성원으로 잘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과제이다.

난민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영(2010), 김종철·김재원(2012), 박종일 외(2013), 안성경·윤이숙(2013), 고경민(2015), 박은민(2016), 한동호(2016), 이상국(2016), 송효진 외(2018), 노충래 외(2018), 이지은(2019), 한영란(2019), 박미숙·손영화(201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른 다문화관련 연구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특히 난민의 인정절차와 법과 정책, 인권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난민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는 박종일 외(2013)와 이상국(2016)의 논문 외에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들 연구 역시 줌머족과 카렌족의 공동체가 형성되기까지 한국사회에 적응과 공동체의 내적분화를 다루고 있으며 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한국사회 적응하면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난민들이 한국사회로 이주 후 다양한 적응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난민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난민과 민족정체성

1) 한국으로 이주한 난민

난민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위협이 처하였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서 난

민에 대한 관심은 20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난민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에 이주하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2013년 7월 한국정부는 난민법을 제정하고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난민들의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난민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난민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던 미얀마 소수 민족인 카렌족 86명을 수용하기 위해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였다(박봉수·김영순 2019: 141). 이외에도 본국을 떠날 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이주국에서 생활 하던 중 발생한 장기화된 폭력사태나 내전 때문에 귀국할 수 없어 난민이 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난민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위험이 처하였거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5명의 난민이 처음 신청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2월 말까지 48,906명이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 중 심사결정 종료자는 23,208명이다. 이 중 936명이 난민인정을 받았으며 1,988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현재 2,924명이 난민으로 보호받으며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다(박미숙·손영화 2019: 220)

난민법 2조에는 난민의 유형을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난민등으로 구분한다. 이들의 유형은 체류자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하여 지위를 결정한다. 이들 중 난민인정자들은 난민법 31조, 32조에 따라 체류권, 취업의 자유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을 받아 국민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심사결과 난민이 아니라고 불인정 처분을 받았으나 보충적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또한 난민법을 통한 난민지원정책은 크게 생계비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난민 인정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있어 따로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난민 생계비는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지원된다. 그리고 주거시설지원은 난민법에 의해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난민인정자에게 난민법 42조 20조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지원은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 자녀는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통합운영기관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들은 한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난민공동체란 한국사회로 난민신청을 하고 함께 모여 살면서 집단의식을 공유하면서 안정감과 귀속감을 느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의 집단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에 나누어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특수성을 유지하며 타국에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민족성과 특수한 생활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적절한 난민 대응책은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용하는지, 더 나아가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탐색하는 것은 난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민의 민족정체성

민족이라는 개념은 통합적 관념으로 계급, 문화적, 에스닉, 지역적 배경을 모두 포함한다(Hall 1999). 또한 에릭슨(Erikson 1968)은 정체성이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편성이고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민족의 혈통, 언어, 문화, 생활방식, 종교 등 객관적인 특성에 민족의식, 민족감정, 민족가치, 지속성 등 주관적인 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민족 집단의 귀속의식과 연대감, 공동체의식을

지칭하는 내면적인 의미와 언어, 문화, 생활방식 등의 외면적인 것을 포함한다. 특히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 이주하여 새로운 이주국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와 외면적인 역량에 의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민족 국가를 내적으로는 근대의 보편 공동체이며 외적으로는 보편적 단일 행위자로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스미스(Smith 1992)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은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우리 삶의 곳곳에 민족정체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는 모든 영역에서 민족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드로비제바(Drobizheva 2004)는 이주민들은 이주국에서 자신과 같이 소수민족 집단으로 동일시 감정을 갖으며 이주국에 살면서 자신의 문화, 언어, 전통성 유지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또한 앤더슨(Anderson 2001)은 민족정체성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과 집단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거치며 형성 또는 재형성하고 해체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정체성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재해석되기도 하고 재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내용이나 형태로 일상생활에 나타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족정체성은 언어나 종교, 관습, 가치관, 문화 같은 요소들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형성해 오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정호영(2001: 79)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은 개인들이 상호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 민족정체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특수한 개념과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난민들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피해 이주하였기 때문에 난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난민들의 민족정체성은 그들 민족의 동질적 정체성이 존재할 때 민족의식이나 동포애, 공동체의식과 같은 정서나 의지에서 생기게 된다. 즉 난민들의 민족정체성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민족이 가진 차이점과 동질성을 인식하면서 한국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한다.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한 난민들은 민족의 경계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 경계에 부딪힌다. 그들은 같은 민족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국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새로운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난민들의 민족정체성은 민족 집단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이나 집단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난민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민족끼리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인식이나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민족구성원 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해간다. 이들의 관계는 한국사회 거주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정책에 따라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며 살아가는지는 이들의 사회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난민들이 한국사회 거주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상황에서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재형성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재형성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한국에서 난민공동체를 형성하고 거주하는 난민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연구는 인간의 삶속에 잠재하고 의식들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이남인 2005). 이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를 차용한 것은 난민들이 공동체 생활환경 속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재형성하기 위한 체험의 의미와 구조,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1년 이상 한국사회에 체류한 난민으로 난민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 8명을 선정하였다. 현상학연구에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심도 깊게 경험을 했으며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반추할 수 있는 참여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

구분	성별	나이	모국	민족	체류기간	자녀	직업
연구참여자 1	남	48	방글라데시	쑤머족	19년	1명	다문화센터 강사
연구참여자 2	여	49	방글라데시	쑤머족	12년	1명	음식점 종업원
연구참여자 3	여	33	방글라데시	쑤머족	10년	2명	음식점 종업원
연구참여자 4	남	31	방글라데시	쑤머족	2년	1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5	남	46	미얀마	카렌족	3년	5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6	남	34	미얀마	카렌족	3년	2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7	여	26	태국	카렌족	2년	2명	공장 생산직
연구참여자 8	여	31	태국	카렌족	2년	4명	공장 생산직

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유기웅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같은 민족인 난민끼리 모여 사는 인도네시아 쑤머족과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총 8명으로 남성 3명, 여성 5명이다. 나이는 20대가 1명, 30대가 4명, 40대가 3명이다. 이들의 모국은 방글라데시가 4명, 미얀마 2명, 태국이 2명이다. 방글라데시가 모국인 사람은 모두 쑤머족이고, 미얀마와 태국 사람들은 카렌족이다, 방글라데시계 쑤머족은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인정 절차를 걸친 사람이고 카렌족은 모두 재정착난민이다. 또한 쑤머족은 김포시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카렌족은 부평에 집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적게는 2년부터 길게는 19년까지 있다. 모두 결혼을 하여 자녀가 1명에서 5명까지 있으며 직업은 공장이나 음식점,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먼저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후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시 불편사항이 있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한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여 진행하였으며 질문지는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재형성하는지에 대해 언어적, 사회적, 종교적, 생활적인 영역으로 구성하고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개인별 1시간 내외로 1-2회씩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자료가 포화되었을 때 면담을 중지하였다. 녹취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파일로 만들었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괄호치기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가 열린 태도로 현상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채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민족정체성의 본질적 모습을 찾기 위해 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원자료와 비교하며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걸쳤다. 분석틀은 스미스(Smith 1992)가 주장한 민족정체성 요소인 종교, 언어, 생활, 사회 등으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확인 받았으며 분석결과는 동료 질적연구자에게 확인 받는 등 연구윤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난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한국사회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난민공동체는 방글라데시 줌머족과 미얀마 카렌족으로 줌머족은 김포시 양촌읍에, 카렌족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들 공동체에 함께 거주하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고 이를 종교, 언어와 생활영역, 사회영역으로 분석하고 구조화해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난민의 공동체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분석 개요

영역	주제	내용
종교 영역	한국에서의 종교 활동	종교를 피해 온 사람, 한국에서 만난 같은 민족, 종교를 통한 정체성
	종교기관을 통한 상호교류	종교를 통해 모이기, 종교기관은 민족의 구심점, 공동체 형성의 기반 역할
	종교 활동 변형	교회와 잘 선택하기, 종교 활동, 나의 의지와 가치관, 교회의 역할
언어 및 생활 영역	모국어 사용과 자녀에게 가르치기	가정에서 사용하기,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치기, 모국어의 중요성
	모국 음식과 풍습 지키기	모국의 풍습 유지, 음식 만들기, 예절 가르치기, 한국에서 문화지키기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며 교류하기	한국문화 배우기, 한국사회에 맞추어가기, 한국사회 통합되기, 문화 조율하기
사회 영역	공동체를 통한 같은 민족 돕기	공동체의 역할, 함께 돕기, 자녀양육, 한국생활의 어려움나누기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얻기, 취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하기, 공공기관 서비스 도와주기
	한국에서 난민아이 함께 키우기	난민으로 태어난 아이, 아이들의 미래, 난민인정, 한국국적

1) 종교 영역

(1) 한국에서의 종교 활동

우리 역사에도 종교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듯이 난민들도 종교 때문에 한 국으로 난민신청 한 사람들이 많다. 난민들은 난민을 신청하면 모국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민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줌머족 역시 모국에서 절대 수용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국의 정착에 집착하고 고립보다는 동화 또는 통합되려고 노력하고 있다(최영일 2019).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줌머족은 종교 때문에 대부분 이주하였고 자신의 모국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저희 집에는 작은 법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한국의 절도 자주 가요.” (연구참여자 1)

“우리 민족은 불교인데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으로 한국으로 왔지요. 한국은 종교가 자유롭잖아요.” (연구참여자 2)

“미얀마사람들은 거의 다 불교인데 불교하는 사람들은 집 앞에 하나씩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미얀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거실에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기도해요.” (연구참여자 5)

한국은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난민들은 종교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종교에 흡수되지 못하고 가정에 법당을 마련하는 등 종교적인 의식을 개별적으로 행하며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또한 카렌족인 연구참여자 역시 가정에 기도하는 곳을 마련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 등 자신의 종교의식을 영위하면서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개인의 법당을 만들거나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난민들은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도 종교를 통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종교기관을 통한 상호교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성혜영 외 2012). 종교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게 하며 특히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종교는 이주민들이 현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종교조직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이주민을 위한 결집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은 종교기관을 통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이게 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저희 센터 대표가 목사님이라 여기는 가정교회라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대부분 줌머족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불교 신앙이 깊지만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나 종교적 차별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우리 줌머족을 모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도 생기고 우리의 인권에 대해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었어요. 어쨌든 교회가 저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교회를 저는 종교적으로 보는 것보다 줌머족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 있어요.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곳에서는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우리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학교 공동체같이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요.” (연구참여자 3)

연구에 참여한 난민들은 종교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난민신청한 사람들이 다. 이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어 개인적으로 법당을 마련하고 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교회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나 성경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보다 교회가 자신들의 민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종교를 떠나 난민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거나 인권이나 직장에서의 문제를 도와주고 한국사회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 보다 자신들은 도와주고 있는 고마운 곳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미안마 절을 찾아가 종교 활동을 하고 같은 민족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저는 일요일에 절에 잘 가요. 미안마 절이 한국에 생겼어요. 미안마에서 스님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여기에서 미안마 사람들 있으니까 일요일마다 꼭 가요. 절에 가면 미안마사람이 100명 정도 와요. 한 달에 네 번 가요.” (연구참여자 6)

“우리가 가는 교회는 카렌사람들만 있어서 카렌말도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면

20명 정도 모이는데 기도도 하고 우리민족도 만나고 하나까 좋아요.” (연구참여자 8)

이처럼 이들은 종교기관은 자신들이 한국사회를 살아가는데 매개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통하여 같은 민족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을 만나기도 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더욱 다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종교는 난민들의 이주 후의 삶에서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서 종교는 민족정체성과 분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는 다양한 문화집단에 대한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차이에 대한 배려를 통해 소수 간의 상호교류 이루며 사회 발전을 도모한다(최경순 2012: 278).

(3) 종교 활동 변형

종교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종교의 기능은 사회통합, 사회통제, 사회변동의 사회적 기능과 긴장해소, 박탈과 보상, 정체성과 소속감의 심리적 기능을 한다(노길명·박형신 2009). 이처럼 난민들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한국 상황에 맞게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한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알아서 기도를 하며 종교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근처의 절을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난민들의 종교정체성은 한국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회사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안 하거나 자신이 절을 다닌다는 것을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어하기도 하였다.

“저희 줌머족 센터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볼 때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응원만 합니다. 저는 근처의 절에 다니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회사에서 기도 안 해요. 사장 때문에 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회사 입사할 때

사장이 회사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오기 전에 기도하거나 집에 가서 일 끝나고 기도해요.” (연구참여자 4)

“저희 가족 5명중 아빠만 불교이며 저희는 모두 기독교이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카렌족 만날 수 있고 절에 가서도 카렌족과 미안마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5)

“일요일에 7시반에 교회차가 와서 데리고 가요. 그러면 같이 가서 속상한 일 있으면 교회가서 사람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1은 한국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다른 종교인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믿는 절을 가기도 하는 등 자신과 다른 종교행사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5와 7 같이 불교를 믿는 카렌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절을 가지만 엄마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등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종교의 관념이 변형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종교 활동이 한국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서로의 종교 생활에 대해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은 자신들의 종교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사회로 이주하면서 종교의 정체성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2) 언어 및 생활 영역

(1) 모국어 사용과 자녀에게 가르치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기능이 아니라 개인의 정서 기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김태진 2016: 55). 특히 언어는 국가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난민들은 다른 이주민과 다르게 가족이 함께 이주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배우지만, 가정 밖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모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난민들의 자녀는 언어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민족정체성을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아이에게 방글라어 가르쳐 줘요. 왜냐면 우리말 못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아빠 말 꼭 배워야 한다고 말해요.” (연구참여자 2)

“집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써요. 아이들은 엄마아빠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우리말 꼭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줘요. 작으에는 조금씩 우리말을 해요. 여기 사람들 다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아이가 카렌말을 잘 했는데 한국에 온 후 잘 못해요. 카렌어 가르쳐야 되는데...” (연구참여자 8)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모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며, 또 한국사회에 살아가는 부모에게는 한국어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자녀들이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알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의 자녀들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대해 백종학·심진영(1994)은 이주민 자녀들이 민족정체성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모국어에 관심을 보이고 민족정체성이 확립되면 자발적으로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난민들 역시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카렌사람이 한국 사람이 돼서 한국어도 잘하고 카렌어도 잘하면 멋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카렌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요. 한국어도 잘해요. 카렌어도 잘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어요. 카렌어는 한국어와 많이 달라요. 우리말도 한국어도 다 잘하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6)

“우리 카렌사람 모이면 언니가 아이들에게 카렌어 가르쳐줘요. 언니가 대학교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카렌사람인데 한국어만 잘하면 나중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못하면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매주 가르쳐줘요.” (연구참여자 7)

또한 난민공동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확인한다면 당연하게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어도, 부모의 모국어도 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희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자녀들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과 함께 한국사회나 자신의 모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 모국 음식과 풍습 지키기

난민들은 한국을 선택하여 이주하였지만 다른 이주민과 다르게 같은 민족끼리 가정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또한 세시풍속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국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풍습을 지키면서 모국의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모국생활을 동경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올 때 카렌 전통 옷과 카렌 국기 가지고 왔어요. 카렌국기를 집에 달아놓은 것은 저희 부부는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는 카렌사람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카렌국기냐고 다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카렌사람이고 이것은

카렌국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통 옷은 꼭 명절에 입어야 하거든요. 아이 들한테 카렌 역사를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이에요.”(연구참여자 5)

“처음 센터 왔을 때 한국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가 만 들어 먹었어요. 근제 지금 여기 부평에 모여 사니까 집에서 매일 카렌음식 만 들어 먹어요. 카렌사람이 많으니까 카렌 소스 일반가게에서도 팔아요. 여긴 태국 가게도 있어요.”(연구참여자 7)

“한국 밥이랑 미얀마 밥이랑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먹어도 배 안 불러요. 미 안마는 반찬도 맛있는데 여기는 맛없어요. 그리고 젓가락, 숟가락도 불편하고 아직도 집에서는 손가락으로 먹는데 밖에 나가서는 숟가락으로 먹어요.”(연구 참여자 8)

연구참여자 5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모국의 국기를 가져와 자신이 비록 몸 은 한국으로 왔지만 마음에는 모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고 연구참 여자 7은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모국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8은 한국의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가 익숙지 않아 아직까지도 집에서는 손가락으로 먹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모국의 문화가 익숙한 이들은 한국생활 에서도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 낳고 여기 줌머족들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는 아기 낳으면 닭고기 죽 같 은 것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기 언니들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 먹 기도 했어요.”(연구참여자 4)

“카렌사람들이 한국에 살아도 한국어도 잘하고 카렌 문화도 계속 지키며 살아 가려고 해요. 생일 때, 명절 때는 고향음식 만들어 먹어요. 또 카렌사람들은 아 기 낳으면 바나나꽃 국을 만들어 먹어요. 딸이 어른이 되면 우리 카렌사람하고 결혼한대요. 왜냐하면 우리사람이기 때문이에요.”(연구참여자 8)

또한 한국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생일이나 명절에는 당연하게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였을 때 모국의 풍습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들이 하던 것처럼 의식을 행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며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김포 난민촌에서는 김포시의원과 같이 난민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난민절에는 저희들의 가장 큰 축제예요. 이때는 한국의 사회단체들도 모두 함께 행사를 해요. 그때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도 입고 시가행진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해요.” (연구참여자 1)

“카렌에서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목에 빨간 줄을 걸어줘요. 옛날에는 불교도 없고 기독교도 없었어요. 그냥 1년에 한번 아들과 딸이 모여서 해주고 건강하고 나중에 좋은 일 하라고 기도해줘요. 이걸 8월달에 헛거 버리고 새로운 것 다시 해요. 카렌사람들이 한국에 살아도 한국어도 잘하고 카렌 문화도 계속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연구참여자 6)

또한 연구참여자 1의 인터뷰내용에서 나타나듯 줌머족들은 난민절을 만들어 난민들의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축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문화를 나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6은 카렌 난민으로 자신의 조부모들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옛 풍습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3) 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우며 교류하기

이주민들에게 한국문화 중에는 한국어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이 한국사회 살아가기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사회 적응하기 위해 한국문화도 익히고자 노력한다. 난민들은 상호 간 도와 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안배우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와서 줌머족 사무실에 와서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여기 센터가 우리 등지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한국에 와서 처음 줌머 사무실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어 배웠어요.” (연구참여자 4)

“일요일에는 한국어 공부가요. 외국인지원센터 있을 때 한국어 배웠는데 많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두 번 경기 글로벌로 가서 배우고 나머지는 집에서 유튜브로 배워요.” (연구참여자 6)

“카렌은 한국문화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식사하면 아버지 어머니 먼저 드리고 우리 먹어요. 카렌사람들이 모여서 추석엔 어울림센터에 만나서 같이 송편 만들어요. 우리끼리 모여 송편 만들면서 카렌이야기 많이 해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2는 초기 한국에 이주하면서 공동체를 통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더 발전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과 8은 한국사회에서 지원하는 다문화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거나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익히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는 한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들은 그 과정에는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난민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민족들이며 이들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었다.

3) 사회 영역

(1) 공동체를 통한 같은 민족 돕기

사회적 참여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합법적인 주변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참여는 단순한 참가의 의미를 넘어 공동체의 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 됨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김신혜 2012). 소수민족들은 공동체를 통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이처럼 이주민들은 자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확립하고 확장시켜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처음에 한국에서 저희 줌머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한국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비를 모아서 전문가를 보냈어요. 현지에 가 보고라고, MBC 기자도 가보고 수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도왔어요. 그렇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줌머족 공동체에서 노력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1)

“2009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 하였는데 집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거하면서 국적 인정 받을 때까지 우리끼리 함께 도왔어요.” (연구참여자 2)

“한국은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보니 한국에서 직접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해야죠. 한국에서 살아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가 뭐지 해본 사람들이 처음 온 경우에는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4)

난민들 역시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이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 정부에서 줌머족에 대한 이해와 정

보가 없어 줌어족 공동체를 통하여 전문가를 보내기도 하고 언론에 노출하기도 하면서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2와 4처럼 난민들은 한국에 먼저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들을 돕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과 같은 민족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했다. 이처럼 가족이 아닌 같은 민족이라는 낯선 사람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강대기 2004: 156)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재형성하기도 하였다.

“갑자기 아기 때문에 일 못하잖아요. 애기 때문에 일곱시부터 여덟시까지 저녁에 애기가 엄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건 없어요. 우리끼리 그런 것 만들어고 해요.”(연구참여자 3)

“아이들을 한국 사람같이 키워야하는데 우리가 한국사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먼저 온 언니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회장님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키워요.”(연구참여자 2)

“○○씨가 우리 카렌족 대표예요. 그래서 한국생활에서 고민이 있으면 ○○씨에게 얘기해요.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씨에게 전화했어요. ○○씨가 도와주웠어요. (연구참여자 6)

또한 난민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적응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공동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처럼 공동체는 협동을 공동기반으로 자신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사고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최근순 2000). 이처럼 난민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서로 협력하

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양한 정보 공유하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윤미지 2012). 난민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취업 자리를 얻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줍머인은 우리가 만약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플 때도 우리 한국말 조금 하니까 같이 가서 도와주고 저희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난민 신청자 신분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하니까 서로서로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해요. 그게 공동체의 장점이에요.” (연구참여자 1)

“일하는데 우리 줍머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일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이렇게 해요.” (연구참여자 2)

“제주도 예멘 사람들 온 이후 한국사람들은 난민에 대한 생각이 더욱 안 좋아요. 그러다보니 사장님들은 난민은 일 없다고 해요. 어딜 가든 난민이라고 하면 안 좋게 취급받아요. 그럴 때 공동체를 찾아가요. 사람 뽑는 곳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구성원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가장 크게는 취업을 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난민들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정서적인 지지를 함께 하였다. 특히 난민신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서로를 도와주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이민자들은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자신들의 종족공동체에서 기반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을

밟는다(윤인진 2016: 41). 그러므로 난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연결망을 활용해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협력하였다.

(3) 한국에서 난민아이 함께 키우기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난민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난민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에 이주하였지만 이들의 자녀는 난민자녀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난민들이 한국의 교육방식에 자녀를 키우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난민들은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와 다르게 부모 모두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하기도 하고 학교교육은 자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난민 허가받고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학교 들어가고 이제 대학까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교육문제,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 찾아주고...” (연구참여자 2)

“여기는 애기들이 태어났으니까 애기도 난민비자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아빠와 저 모두 한국국적이 안 나와 많이 힘들었는데 애기들도 힘들 것 같아 걱정이예요. 부모가 국적을 받아야 아이들도 국적을 받는데 유치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갈 때 난민이라 서류가 많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 줌머인들이 도와줘요.” (연구참여자 3)

난민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가 태어나면서이다. 특히 아동들은 정체성 확립이 친숙함에서 나온다고 한다. 아동들이 가족, 음식, 관습 등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에서 친숙함을 통해 자신과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한다(안한나 2006). 이처럼 공동체는 아이들의 양육문제, 학교 생활문제, 학교교육 문제 등으로 더욱 결속하여 공동체 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기도 하고 함께 키우기도 하며 서로 돕고 있었다. 특히 난민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교육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 공동체에서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자녀들이 공무원하고 싶은데 난민으로 태어났고 대학교도 안 나왔다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려 해요. 난민신분이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또 난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후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지요.” (연구참여자 1)

“우리 줌머족은 한국으로 말하면 같은 성씨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다보니 한국에서 직접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해야죠. 한국에서 살아야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4)

또 난민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한국사회에 살아가야 하는데 난민이라는 위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난민들은 더욱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과 같은 난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였으며 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난민들까지도 돕고 싶어 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난민으로 경험하는 문제들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난민들이 한국사회로 이주 후 다양한 적응을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형성하면서 살아가는지

탐색하고 이를 통해 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무리에 함께 살고 있는 난민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종교, 언어 및 생활, 사회영역으로 분류한 후 구조화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난민들은 종교를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자신들의 종교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종교기관은 민족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체가 모이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종교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변형되기도 하였다.

둘째, 난민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며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거나 또 모국의 음식과 풍습을 지키며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난민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었다. 공동체를 활용하여 같은 민족을 최대한 도우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고 서로 협력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같은 민족임을 인지하고 같이 보호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재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난민들의 공동체는 이들의 한국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계토화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공동체를 활용하여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난민들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난민의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난민공동체를 활용한다면 다양한 난민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난민공동체에 대한 내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난민에 대한 이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들이 난민들을 이

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난민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난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져 난민공동체를 활용하여 난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난민공동체를 통하여 난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재형성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난민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교신: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kinysoon@inha.ac.kr)

Correspondence: Kim, Young Soon(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 Dept. of Multicultural Studies, Inha Univ)(kinysoon@inha.ac.kr)

2020.02.01 접수, 2020.02.03 심사, 2020.02.25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대기, 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 고경민, 2015, 난민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 및 교재개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9(2), 164-192.
- 김신혜, 2012, 제2언어 학습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 주제와 전망, 중등영어교육, 6(2), 29-54.
- 김종철·김재원, 2012,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공익과 인권, 12, 135-187.
- 김태진, 2016, 재미한글학교 학습자 정체성 구성요인과 언어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길명·박형신, 2009,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서울: 이학사.
- 노충래 외, 2018, 국내 난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3, 23-53.
- 박미숙·손영화, 2018,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 모색, 교

- 육문화연구, 24(3), 523-546.
- 박미숙·손영화, 2019,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217-251.
- 박봉수·김영순, 2019,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이동과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13(1), 135-167.
- 박은민, 2016, 한국에 입국한 난민의 삶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일 외, 2013,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13(1), 199-235.
- 백종학·심진영, 1994, 미국사회에서 한국인 2세가 겪는 언어와 정체성의 문제, *이중언어학*, 10, 34-42.
- 성혜영 외, 2012, 바람직한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송효진 외, 2018,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이화젠더법학*, 10(3), 149-189.
- 안성경·윤이숙, 2013, 난민의 지위와 인정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3, 127-150.
- 안한나, 2006, 재미교포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어 능력과의 상관관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기웅 외, 2013,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미지, 2012, 지식창조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공유공간 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인진, 2016,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 60, 37-81.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적 연구, 24, 91-121.
- 이상국, 2016,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재한 미얀마 카렌족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동남아시아 연구*, 26(2), 101-143.
- 이주영, 2010, 한국거주 난민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 2019, 재정착난민아동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교육방향: 미얀마 카렌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호영, 2001,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 2012, 다문화선교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과정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근순, 2000, 사회구성주의의 도덕 교육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일, 2019, 좀더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동호, 2016, 한국난민정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정부학회*, 241-255.
- 한영란, 2019, 재정착난민 청소년의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교육 실태와 방향: 교육지원 과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edict A., 2001, The Complexity of Ethnic Identities: A Postmodern Reevalua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 209-23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ll, R. B., 1999,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Social Constructs and International Systems*, Columbia University Press.
- Smith, A. D., 1992,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68(1), 55-76.
- Л.М. Дробижева, 2004, Теоре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этничности, Метод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сессии, Эт носоциология. Социология конфликтов, РУДН, Москва, 2004, 33.

A Qualitative Study on the Ethnic Identity through the Refugee Community

Park, Mi Suk* · Kim, Young 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refugees maintain and newly form ethnic identity as they form and live in communities in order to adapt to various areas after moving to Korean society.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refugees living together in the refugee community in Korea, and the ethnic identity of them was divided into religious, cultural, and social aspect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of all, in religious terms, refugees living together in the community had moved to Korea because of religion, so they tried to maintain ethnic identity through religion. Second, on the cultural side, the family used their native language, taught their children their native language, and tried to protect their native language. Finally, from a social point of view, they were living helping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to adapt to Korean society, sharing various information as well as educating their children through the community.

Keywords Refugee Community, Ethnic Identity, Religion, Language and Life, Society

* Inh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Multicultural Education, parkmisuk@inha.ac.kr

** Inha University,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kinysoon@inha.ac.kr